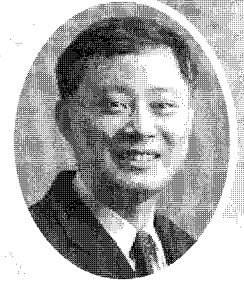


하반기 비육우 사료산업 전망



박 응 렬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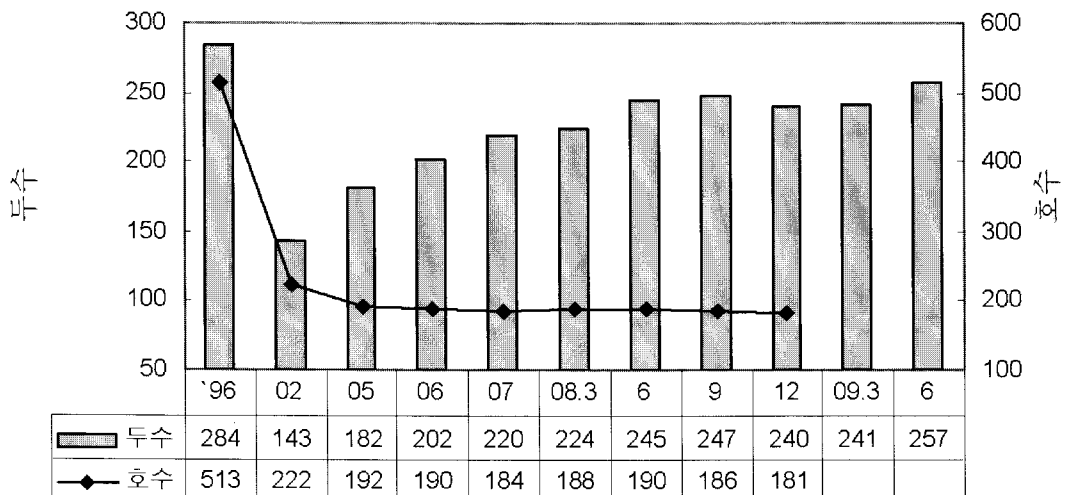
㈜ 삼양사 축우PM

최근 6개월간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국내의 비육우 양축가와 사료업계 모두 IMF이후 최대의 혼란을 겪고 있다. 2008년 이후 급격히 상승했던 곡물가격이 고환율의 영향까지 겹쳐 사료가격은 고공행진을 유지하고 있으며, 환차손의 영향으로 거의 모든 사료업계가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환차손의 영향은 비단 사료업계뿐만 아니

라 외국에서 곡류를 수입해서 가공 판매하는 국내의 전체 식품산업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곡물의 자급도가 낮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이러한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비육우 사육두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09년 6월에는 2002년 이후 최고 두수인 257만두를 예상하고 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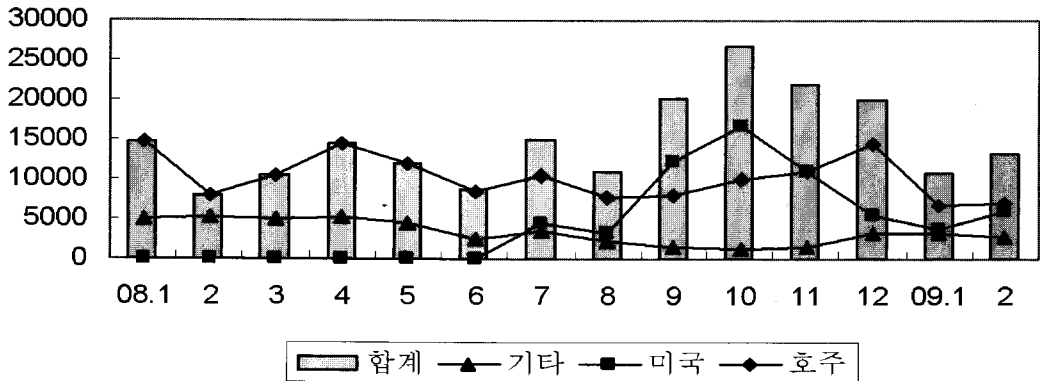
(단위 : 만두, 천호)



(출처 :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

<그림 1> 비육우 사육두수와 호수변화

(단위 : 톤)



(자료 : 한국 육류유통수출입 협회)

〈그림 2〉 국가별 월별 쇠고기 수입량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미산쇠고기의 수입증가”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9년은 국내산 한우의 산지가격과 송아지 가격이 대 폭 하락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고회율의 영향은 쇠고기 수입업자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수입량이 작년 말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2>.

작년 10월 27,000톤이었던 쇠고기의 수입량이 2009년 2월에는 절반수준인 13,000톤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고회율에 따른 일시적인 영향으로 회율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 될 경우 다시 쇠고기의 수입량은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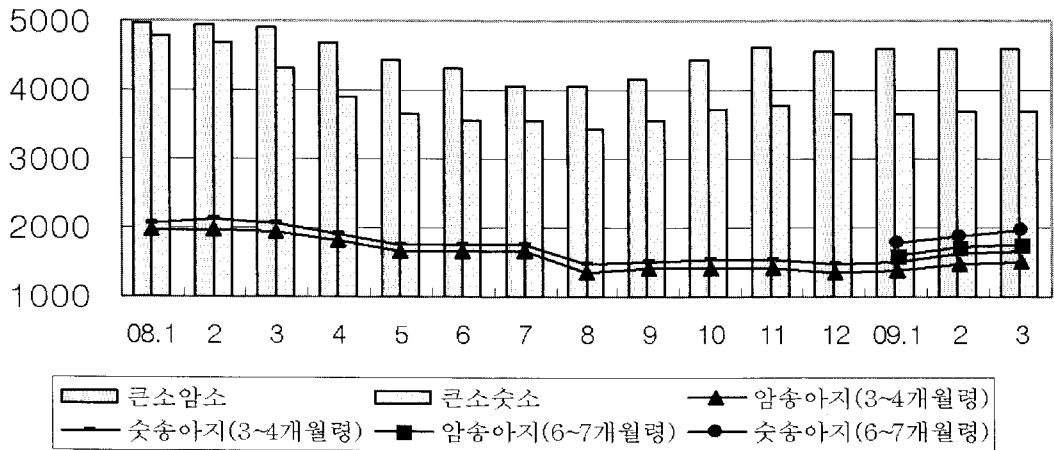
작년 연말부터 쇠고기 수입량 감소에 따른 총 쇠고기 공급량의 감소와 연말과 구정의 쇠고기 소비 성수기의 영향으로 회복되었던 한우의 산지가격이, 쇠고기 소비가 비수기인 현재에도 작년 대비 비교적 높은 한우 산지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3>.

한우가격의 상승과 함께 한우의 사육심리가 회복되면서 한때 140만원대까지 하락하였던 6~7개월령 숫송아지의 가격이 2009년 4월 현재에는 200만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그림 3>. 이러한 한우와 송아지가격의 상승에는 쇠고기 수입량의 감소 이외에 다음의 2가지의 원인이 예상된다.

그 첫번째가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시행이다. 2008년12월부터 농장과 일부 대형 식당에서만 실시되던 쇠고기의 이력추적제가 올 6월부터는 모든 가공공장과 정육점 그리고 식당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그 결과 소비자 들의 한우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면서 한우의 소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우의 소비를 부추긴 또 하나의 기폭제는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우 전문 정육식당이다.

지금은 도시나 시골 어디서나 흔히 정육점과 식당을 겸한 값싼 정육식당을 흔히 접할 수 있고, 중간 유통의 거품을 뺀 산지직거래

(단위 : 원)



(자료 : 농협 영농정보)

〈그림 3〉 한우의 월별 산지가격 변화

의 한우전문 매장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3월호)의 보고에 따르면 2005년 6.7kg까지 하락하였던 1인당 쇠고기소비량이 2008년에는 8.4kg 그리고 2009년에는 9.2~9.8kg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우리 장기적인 한우산업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 할 것이다.

두번째가 양축가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었던 사료가격의 인하이다. 올 4월 이후에 실제 적용되는 곡물가격이 작년 대비 큰폭으로 하락하여 3월에 이어 추가적인 사료가격의 인하가 예상된다.

여기에 만약 환율까지 1,300원대 이하로 안정될 경우 양축가들에 대한 사료비의 인하 폭이 더욱 크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부분은 송아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번식우 농장의 수익성 향상과 함께 내년 이후의 한우의

사육두수가 증가 할 가능성 또한 예상된다. 그러나 올 하반기의 한우의 총 사육두수는 작년의 높은 암소의 도축율과 한우정액 사용의 감소로 인해<표 1>, 올 6월의 예상 두수인 250만두 정도가 유지되리라 예상된다.

〈표 1〉 한우의 암소등급판정두수 및 정액 판매량

구 분	2007년	2008년	비 고
등급판정두수	21만2천두	26만3천두	24% 증가
정액판매량	200만 스트로우	194만 스트로우	3% 감소

(자료: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

올 3월 이후 곡물 및 사료가격이 하락의 추세에 있기는 하나 현재 비육우 산업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분야는 육우 사육 농가들이다. 육우는 한우 보다 전체 생산비

〈표 2〉 비육우의 등급별 가격 격차 (' 09년 1~3월 평균)

구 분	비율 (%)	지육가격 (원/kg)	1++대비 두당 가격차이(원)	
거세한우	1++	15	17,291	0
	1+	32	15,919	548,800
	1	32	14,893	959,200
	2	19	13,377	1,565,600
	3	2	10,388	2,761,200
거세육우	1++	0.3	10,619	0
	1+	3	10,376	97,200
	1	12	9,536	433,200
	2	41	8,430	875,600
	3	43	7,231	1,355,200

(자료: 축산물등급판정소)

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현재 전체 육우농가의 90% 이상이 적자의 경영을 하고 있으며, 일부농가들은 한우로 전환하는 경우 또한 발생하고 있다.

결국 육우 송아지가격의 하락에 따라 낙농 농가들이 수익보전 차원에서 직접 육우를 사육하는 경향 또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육우의 안정적인 수익보장을 위해서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육우의 최대의 강점인 “국내산 쇠고기”라는 이미지를 살린 “육우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미산 쇠고기와 품질면에서 차별화” 할 수 있는 등급 출현율의 향상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안정적인 육우사업을 위해서는 2등급이상의 등급 출현율이 80% 이상 (1등급 30% 이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비육과

함께 마블링기능이 강화된 고급육사료의 이용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육우사료 업계에서 올 하반기에 있을 최대의 이슈는 현재 정부에서 한우산업의 장기 전략사업으로 준비중인 시도별 광역한우사업단의 설립이다. 본 사업의 목적은 수입쇠고기에 대한 국내 비육우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일정두수의 한우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정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국 140개의 농가협의체와 12개의 우수브랜드의 시도광역한우 사업단을 설립하여, 본 사업단 중심으로 축산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올 6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본 사업단은 “사료의 통일”을 전제로 하여, 개량사업, 등급출현율, 농가교육, 유통실적 등의 항목으로 매년 심사를 거쳐 우수 협

의체 및 사업단 위주로 정부의 지원자금이 우선 배분될 계획이다.

아직 협의의 단계에 있지만 본사업이 본격 실시되면 현재 70%의 비육우사료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농협사료 및 지역 농축협 사료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비육우사료 생산업체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글을 종합하면 미산쇠고기 수입량의 변수가 있긴 하지만, 올 하반기의 국내 비육우 사육두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정착과 사료값의 인하로 인하여 비육우 사육두수가 250만두 수준에서 안정되리라 예상된다.

그리고 비육우 농가조직 및 사료업계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시도한우광역사업단의 영향을 받아 일부 재편되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의 성공적인 정착 및 농가들의 수익향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등급출현율의 향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축기들은 꾸준한 고급육 생산기술의 습득이 필요하며, 사료업계에서는 고급육생산에 대한 R&D강화, 사료원료의 구매경쟁력 향상, 사료생산·판매 이외의 등급출현율 향상을 위한 농가 서비스 향상 및 축산물 유통 등의 관련사업에 대한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 생각된다. ☒